



# 세호마린솔루션즈(주) 6.5K LNG선 개발

세호마린솔루션즈(주)는 최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중형선박설계사업단과 공동으로 6.5K 용량의 LNG운반선 선형개발 및 기본설계 개발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사는 앞으로 국내의 우수한 LNG 선박 기술 및 LNG 기자재 공급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외 특히 동남아 소재 잠재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중소형 LNG운반선 수출 마케팅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울산 유일의 종합선박설계 회사인 세호마린솔루션즈(주)는 2020년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이 장착된 예인정 개념설계를 해군에 공급한 바 있으며 지금은 중소형 유람선과 Launch Boat 등 친환경 중소형 선박 설계 및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그리스 선사와 MOU를 맺고 208K B/C 10척에 대한 LNG 연료추진선 개조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하고 개념설계를 공급하는 등 친환경 연료 개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소선박 설계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동사는 수소연료전기추진선, 배터리 전기추진선 등 저탄소, 제로넷탄소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설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정부의 조선 산업 활력제고 및 중형선박설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KRISO 중형선박설계사업단은 발족 후 중소형 조선소 및 선박 엔지니어링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HMM, GS칼텍스와 원유 장기운송계약 체결

- 내년부터 10년간 약 6,300억 원 매출
- 최대 5년 연장 가능
- 초대형 유조선(VLCC) 3척 투입
- 사업 다각화와 안정적 수익 확보



HMM(대표이사 배재훈)이 GS칼텍스와 10년간 약 6,300억 원 규모의 원유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HMM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32년 7월 1일까지 10년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서 한국으로 GS칼텍스의 원유를 수송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HMM은 30만톤급 초대형 유조선(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 3척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일정에 따라 양측의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추가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HMM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의 협력관계는 더욱 견고해 졌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우량화주들과 장기 계약을 확대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사업 다각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HMM과 GS칼텍스 간의 원유 운송사업 부문의 협력은 그 동안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지난 2018년에도 5년간 약 1,900억 원 매출 규모의 원유 장기운송계약을 체결 한 바 있다.■

KCC Marine Coatings

EXCELLENT FUEL EFFICIENCY SOLUTION **EgisELF**

State of the Art Anti-fouling Performance, powered by KCC

- Ultra-Low Friction Technology
- Powerful Anti-fouling Performance
- Up to 90 months Performance maintenance
- Fuel Efficiency Guarantee
- Long Idle Period

SALES CONTACT | Tel 02-3480-5967 E-mail omcd@kccworld.co.kr / mpmd@kccworld.co.kr Web www.kccmarine.com